

보도시점 2026. 8. 7.(금) 11:00 배포 2026. 8. 7.(금) 9:30

## 구윤철 부총리,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하여 폭염 취약계층 생활환경 점검

- 쪽방촌 내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쪽방사무소 관계자 격려

구윤철 재정경제부 부총리는 8월 7일(금) 오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하여 거주자들의 생활환경을 점검하고, 일선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.

이번 현장 방문은 폭염중대경보 발효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의 건강 및 생활여건을 살펴보고, 폭염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구 부총리는 먼저 쪽방주민들에게 생필품 및 냉방용품 등을 제공하는 온기창고 4호점을 방문하여 이용현황에 대해 청취한 후, 쪽방촌 공용에어컨과 안개형 냉각장치(쿨링포그) 가동상황을 점검하였다.

이어 인근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와 냉방시설 이용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, 폭염경보 발효 등 더위가 극심할 때는 공용에어컨 및 무더위쉼터 등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.

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쪽방상담소를 방문하여 무더위쉼터, 목욕실 등 시설을 살펴보고, 더운 여름철 쪽방 주민들을 위해 정기적 안부 확인 및 공용시설 관리 등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고마움을 전하였다.

구 부총리는 “모두가 더운 여름이지만,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하다”며, “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폭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”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재정경제부 | 민생안정지원단 | 책임자 | 팀 장 | 최은경 (044-215-2861)  |
|       |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황지현 (sk12@korea.kr) |